

광주·전남 大해부

전남편 <제2부> 해양·관광

청산도, 슬로시티 지정 2년 넘도록 펜션 하나 없어



전남 서남해안의 섬은 모두 1964개(유인도 276개·무인도 1688개)로 전국의 61.4%다. 전남도는 이들 섬이 갖춘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 세계적 휴양·관광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2 섬 관광산업 실태

#1.영광군 낙월면 송이도(松耳島·면적 2.97km). 법성포에서 28.5km 떨어진 섬으로, 몽골몽골한 하얀 조약돌 해변이 길게 3.5km, 30ha에 이르는데다, 썰물 때면 바다가 드러나는 '풀등(맛등)' 등의 관광 자원을 갖춘 탓에 입소문이 나면서 매년 수천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남지역 섬 중 한 곳이다. 영광군도 '아름다운 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펜션을 짓고 해변에 나무데크를 설치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게 전부다. 하루 한 편인 뱃길은 관광객들을 발길을 묶어놓는다. 주민들이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뱃길은 그대로 두고 말로만 관광객 끌어들이면 뭐하니"는 비아냥도 흘러나온다. 섬 내 관광객들을 위해 수영원을 들여 설치한 수영장은 아예 흥물로 방치된 채 지난 여름 피서객을 맞았다.

#2. 여수시 남면 안도(安島·3.96km)는 에메랄드빛 해변인 이아포·백금포 해변에 다도해 절경을 품은 등산로로 유명한 금오도(金鰲島·27km)와 다리로 연결되면서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섬이다.

그러나 지난 여름 이 섬을 찾은 관광객 수 천명은 해수욕장 진입로에 버티고 선 허물어진 흥물과 바다에서 밀려온 해양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렸다.

'섬 관광자원화'사업은 전남도의 핵심 현안이다.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던 1964개(유인도 276개·무인도 1688개)의 섬을 활용, '버려진 땅'을 '보물섬'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민들의 체감도는 싸늘하기만 하다. 있는 자원조차 관광 상품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말만 앞세운다며 아우성이다. 전남도 섬 관광산업의 문제는 무엇일까.

전남이 103개 지구에 연륙·연도교를 건설해 섬과 섬, 섬과 물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세운 것도 접근성 향상에 따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증도대교(2010년 3월) 개통으로 연간 24만명이 찾던 증도는 전국에서 65만명이 찾는 대표적 관광지로 거듭났고 완도 신지대교(2005년) 개통으로 이 일대를 찾은 관광객은 15만명에서 90만명으로 늘어났다. 또 백야대교(2004년) 준공으로 3만명 수준인 관광객이 15만명으로 증가한 것

머무르기 어렵고 가기 힘든 교통·숙박난 여전 연륙·연도교 건설 등 정부 차원 지원 이뤄져야

◇가기 힘들고=비교 우위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교통·숙박 등 이른바 기반시설 즉 '하드웨어'는 형편없다.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서비스는 관광객들의 눈 높이에 맞추기도 벅잡다는 것이다. 우선 취약한 접근성, 물과의 직선 거리는 불과 20~30km 안팎인 섬이 많지만 한 번 가려면 뱃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탓에 '여객선이' 밀려서 더 이상 못간다고 하면 대책이 없다며 행정기관도 손을 놓기 일쑤다. 우수한 관광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불만이 쌓일 수

으로 전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다리 하나 놓는데 수백억 이상 들어가는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절감'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 39개 지구를 완료하고 18개 공사가 진행중인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

◇머무르고 싶지도 않고=숙박난도 심각하다. 청산도의 경우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 2년이 넘도록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고급 펜션 하나 없다. 전남도가 미리 부지를 구입, 투자자에게 제공키로 했지만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3.3m당 2만~3만원 하던 땅값이 10만원

전남도가 지금껏 민간투자를 진행했던 17개 테마 섬 가운데 관광객이 머물 숙박시설이 건립된 지역은 손에 꼽는다.

▲자은도(펜션·기압관 등 598억원) ▲도덕도(펜션 및 콘도 1071억) ▲임자도(펜션, 에너지파크 등 441억원) ▲지도(해수온천·펜션·갯벌체험장 등 750억원) ▲남도(호텔·콘도 등 타임머신 아일랜드 조성 2053억원) ▲백야도(콘도·컨벤션센터·범선이벤트호텔 등 3500억원) ▲신지도(해양리조트 80억원) 등은 첫 삽조차 못 뚫었다.

열악한 인프라는 우수한 관광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유망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켜 섬을 '버려진 땅'으로 방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광산업, 지방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 의지 보여야=전남도는 지난 2005년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신안·영광의 '다이아몬드제도', 진도·해남의 '조도', 완도의 '보길도', 여수·고흥의 '사도·남도' 등 4개 권역 40여 개 섬에 4조5898억원을 투자해 세계적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이른바 '갤럭시 아일랜드' 프로젝트다.

예컨대 여수 사도·남도는 생태의 섬으로, 꽃섬(상·하화도), 역사·문화의 섬(거문도), 등산의 섬(금오도), 낚시의 섬(진지도), 원시체험의 섬(시호도), 가족의 섬(우도), 휴양의 섬(녹도), 사랑의 섬(송이도), 건강의 섬(노화도), 전망의 섬(조도), 음악의 섬(관매도), 원숭이 섬 등 다양한 테마로 섬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5년이 지난 현재, 사업 진척도는 더디다. 박 지사가 "(계획을) 만들어만 놔는데 보고하는 게 없다", "하나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족한 인프라,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 위축까지 겹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는 가뜰이나 힘든 섬 개발의 발목을 잡았다. 자금이 없어 직접 개발하기는 힘들고 국비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심사를 강화하면서 관광분야의 투자 실현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기획재정부·감사원·문화체육관광부 등에 PF 대출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관광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연륙·연도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순한 지역 민원 해소용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세계적 관광·휴양지 개발 관점에서 접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비교우위의 관광 자원 등 잠재적 여건이 충분한 만큼 21세기 신 해양시대 성장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과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eumsoo Hotel. Text: www.geumsoo.com,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객실요금 4만원부터. 부담 없습니다. 4-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거리. 휴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 등 다양한 부대시설. 편리합니다. 한담 한담 직접 퀘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의 주요 고객.

Advertisement for movieholic, MEGABOX, and CINUS.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최고급관. CINUS 색깔있는 영화선. 상무점, 아남점, 1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심야의FM(18세), 2관 경우강호(15세)/데블(15세), 3관 부당거래(18세), 4관 부당거래(18세), 5관 대지진(전체), 6관 가디언의전설(전체)/나탈리(18세), 7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레드(15세), 8관 돌이킬 수 없는(15세), 9관 불량남녀(15세), 10관 레드(15세). 아남점 1관 가디언의전설(3D)/월스트리트(12세), 2관 부당거래(18세), 3관 불량남녀(15세), 4관 하비의마지막로맨스(12세), 5관 돌이킬 수 없는(15세), 6관 심야의FM(18세)/소외하게여행하는법(15세), 7관 레드(15세), 8관 부당거래(18세), 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데블(15세), 10관 대지진(전체). MEGABOX 1관 부당거래(18세), 2관 불량남녀(15세), 3관 레드(15세), 4관 돌이킬 수 없는(15세), 5관 가디언의전설(3D)(전체), 6관 심야의FM(18세), 7관 데블(15세), 8관 불량남녀(15세), 9관 부당거래(18세). CINUS 1관 부당거래(18세), 2관 초능력자(15세), 3관 불량남녀(15세), 4관 심야의FM(18세)/데블(15세), 5관 레드(15세), 6관 언스토퍼블(12세), 7관 초능력자(15세). 상무점, 아남점, 매일 심야상영/호남최대주자장/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구. 런던약국사거리 1544-0600.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511-1000. 색깔있는 영화선 \*www.cinus.co.kr 세너스전대3D(4K)상영!!